

오늘의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
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
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
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28:5-6

통 권 제 206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7년 4월 22일

함즐함울

www.pcltv.org



〈사진설명〉2006년 무지개 축제 1부, 무지개 운동회에 성도들이 함께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주님의 가족 하나되어 무지개축제 만들어요!

‘무지개의 꿈’이라는 주제로 2007 제5회 무지개축제가 5월5일 어린이날 오전10시에 정신여중고 운동장에서 시작된다. 유소년축구클럽의 오픈경기를 시작으로 1부, 무지개운동회를 갖는다. 색깔별 4팀인데, 1,4교구와 영어 예배팀은 노랑팀, 2,6교구와 길가예교회는 빨강팀, 3,8교구는 하양팀, 그리고 5,7교구는 파랑팀이 되어 경기에 임하게 된다. 각팀은 가급적 팀별 색깔에 맞는 T-셔츠나 상의를 입고 참석하면 좀더 입체적이고 단합된 운동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부 운동회는, 전교인이 남녀노소 하나되어 웃고 즐기며 뛰고 노는 온가족 운동회가 될 것이다.

2부는 12시부터 2시30분까지 4가지 마당이 동시에 진행된다.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성경보드게임, 초등학교 이하 자녀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가득한 놀이마당, 그리고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마당이 동시에 운동장 및 교정 곳곳에서 열린다. 운동장의 팀별 텐트에서는 구역별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점심식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먹거리장터에서 떡볶이, 왕만두, 김밥, 전빵, 순대, 오뎅, 국밥, 아이스크림, 옥수수, 과일, 떡, 커

전교인이 하나되어
웃으며 뛰고 노는
온가족 운동회가
될 것으로 기대..

피 등을 500~2,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 먹거리장터는 11시30분부터이며, 메뉴별 쿠폰을 구입하여 이용하면 된다. 쿠폰구입은 11시부터 가능하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오는 이들을 위하여 2가지 정도의 요기끼리 메뉴는 10시부터 오픈할 예정이나 운동회가 진행되는 오전에는 가능한 운동회에 집중하기 위하여 먹거리장터의 이용은 자제하며, 나머지 장터의 오픈시간을 꼭 지켜주길 준비위원회에서는 당부한다.

놀이마당 및 축제마당은 코너별로 도장을 찍어주는데, 코너별 도장을 일정수 이상 받은 어린이들은 종합선물 코너에서 선물을 나누어준다. 축제마당은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코너이므로 가족들이 함께 축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코너별 위치등의 행사 당일 자세한 안내는 배부되는 행사안내도를 참고하면 된다.

3부는 2시30분에서 4시까지 전교인 어울림의 시간으로 대예배실에서 열린다. 교회학교, 장년부 등이 하나되어 어울리며 웃고 즐기는 하나됨의 시간이다. 이 시간의 내용들은 행사당일 까지 비밀에 부쳐지기도 한다. 부서별로 준비하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마음을 모으기에 행사전날까지 수정된 경우도 있으며, 그만큼 전교인 어울림을 위해서 고민하고 수고하는 만큼 기쁨도 큰 시간이 될 것이다. 남녀노소가 될 것 없이 온 교우들이 하나되어 즐거움을 나누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당일 안내지를 참고하면 된다. 3부의 마지막에 축복권 추첨시간이 있다. 이시간 상품은 교우들로부터 들어온 협찬품들이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교우들의 상품협찬을 받고 있다.

무지개축제는 교회에 낯선 가족이나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할 수 있다. 축제기간동안 사진부에서는 행사장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의 교우들의 사진을 촬영하며 행사후 주일에 1층복도에서 사진전시회를 갖고, 행사기간 내내 119센타가 운영되는 것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창현 목사

나의신앙이야기 _ 손인호	5면
특집, 봉사·목양 사역본부	2~4면
하프타임강좌	6면
무지개 축제 조직표	6면

로템나무

기도를 다짐하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용기를 내야 한다.’

고든 리빙스턴의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문구이다. 그다지 새로운 가르침도 아니건만, 이 글을 읽고 나는 솔직히 많이 찼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크리스천임을 공공연히 밝히는데 주저함이 없는 나지만,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갖가지 핑계거리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너무 피곤해서’,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 ‘성경을 한 장 읽었으니 그걸로 대체하자’ 등등 나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홀로 기도하지 않기 일쑤였다.

그러던중 최근 마태복음을 읽다가, 갯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열심히 졸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했다.

미적지근하게 지속된 신앙에 자족하며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던 나.

구하지도 찾지도 않은채, 내 기도의 문을 닫아두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에 빠져들곤 했다.

이번 기회를 빌어 타성에 젖어있던 나의 신앙을 뒤돌아본다. 내 안의 모든 끈기와 용기를 발휘해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최사라 기자

※9기 중보기도 세미나※

중보기도 사역을 함께하기 원하는 분 또는 중보기도에 대해 배우기 원하는 분은 1층 안내데스크에 등록을 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 4월 26일(목) 오후6시~오후9시까지

4월 28일(토) 오전9시~오후6시까지

장소 : 5층 세미나1실

문의 김형기 권사 019~269~5306



“주님내가여기 있습니다.” 봉사·목양 사역본부를 찾아서...

지난 1월부터 사역부서를 취재하면서, 여러 부서장들과 인터뷰중에 가장 은혜스러웠던 것은 아마도 새신자사역팀의 고백이었다. 우리 교회에 당회장이 갑자기 유고되었을때, 제일 먼저의 근심은 새신자가 한명도 찾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근심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월 50-70명의 새신자는 변함없이 찾고있고 1년에 500-700명의 새신자가 등록한다고 했다. 또 하나는 봉사하시는 모든 부서의 공통점은 자신의 삶에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납한다는 사실이었다. 봉사부 주방부, 찬양대,..... 모든 부서의 부원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시간을 헌납하기 위해 열심이었다. 모두 축복하고 자랑하고 싶었다.

취재 및 정리: 신형섭, 이정애, 하태원, 허진, 기자

※ 취재에 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봉사사역본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길.....



본부장 박호길 장로 위원 김한중 피택장로 김창안 피택장로

봉사사역본부는 박호길 장로를 본부장으로 하고 있으며 김한중, 김창안 피택장로가 봉사하고 이호, 박의일 목사가 돕고 있다. 사람들이 편하고 즐겁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예배 후 친교를 위해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잔, 점심으로 즐거움을 주는 국수 한 대접이 모두가 봉사하는 사람들의 손길로 인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봉사자들 역시 치밀한 조직과 일사분란한 팀워크를 가지고 봉사하고 있다.

박호길 장로는 주님의교회 온성도들이 불편함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봉사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사부|

봉사부는 남녀 40명의 봉사부원들이 아침 6시 커피를 끓이는 주일 일과로 사역을 시작한다. 모두가 고요히 예배드리는 1부시간, 봉사부원은 바빠 주방으로 달려가 컵을 운반하여 1부 예배 참석하는 분들에게 커피대접을 준비한다. 여집사님은 커피를 감칠맛나게 비율을 정하여 주전자에 담아두면 남집사님은 이를 진열시키고 컵을 세척하고, 배달하고 주변을 청소한다. 이어서 제공되는 커피는 5,000잔 정도가 되면 일과가 끝난다.

한형석 봉사부장은 “교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처음 온 교우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말하며 몸은 조금 피곤하나 영혼이 평강을 원하는 사람은 봉사부로 오라고 적극 홍보했다.

이어서 강혜선 집사님은 “교회내에서 불필요한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안살림의 간간함을 보여주었다.



부장 한형석 안수집사, 강혜선 피택집사

|주방부|

본교회의 기쁨 중에 하나는 예배후 국수를 먹는 일이다. 멸치다시국물 냄새와 김치, 단무지가 입맛을 돋운다. 예배까지 마쳤으니 얼마나 기쁘랴?

그러는 가운데도 주방은 새벽부터 돌아간다. 새벽 5시 반팀, 오전 8시반팀, 오전 11시반팀 3교대로 주방 가마솥은 국수를 삶아낸다. 전체 기존 봉사 인원이 50명으로 하루 3,000그릇의 국수를 삶아내기는 벅하다. 매주 구역에서 3팀씩 도와주고 있으나, 마무리시간대(오후 1시부터 2시반사이)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주방팀장인 박경옥 권사는 아침 8시쯤 숙소자들에게 국수를 접대하고 그 후 본교회 성도들에게 국수를 접대할 때, “국수 국물이 맛있다”는 한 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싹 가시게 한다”고 말했다.



|주차안내부|

주차부는 30명의 봉사자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도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상 인원 부족과 주차의식미비로 주차계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는 6개월간 피택자들의 협조로 차량인도가 원활했다. 현재는 주차지도 봉사자가 부족하여 2부 3부때는 매우 힘든 형편이다. 주차 팀장 배익환 집사는 “인원보장이 필수적이며 주차안내시 인원부족으로 신속한 안내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양해하길 부탁드립니다”며 차량 운행 때는 반드시 안전수칙 준수가 최우선이며 귀가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운동장 입구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차량주차 방법이 바뀔



부장 배익환 피택안수집사



수 있으므로 안내에 성실하게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여자주차원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실만한물가팀|

‘실만한 물가’는 주일에는 봉사부원의 봉사장소로 평일에는 카페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만한 물가는 마땅히 성도들의 친교공간이 없었던 3년 전에 성도의 편의와 목회적인 배려로 만들어진 ‘북 카페’이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수익금은 모두 교회에 헌금으로 처리한다. 작년에는 기초비용을 제외하고 80만원을 헌금을 할 수 있었다고 이은우 피택권사는 전했다. 그런데 가끔은 자원봉사자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소란스럽게 떠들어 무안할 경우도 있다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봉사자가 초창기에는 20여명이었으나 지금은 10명에서 교대로 봉사한다고 동참하실분은 연락바란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작년 교육청 행사에 2,000명이 참석하는 대형 행사를 치렀을 때라고 했다.



팀장 이은우 권사



|도서실사역팀|

도서실 사역팀은 자원봉사자 2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화요일~주일, 책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하며 대출대상은 정신여중고 학생, 지역주민, 본 교회성도 등이다.

대출방법은 등록교인으로 대출카드를 작성한 후 회원명부에 등록하면 대출증을 발급해주고 대출증을 이용하여 5권씩 1주일 대출이 가능하다. 최정순 팀장은 반납기



팀장 최정순 권사



일을 인수할 것, 재고파악인원이 필요하니 자원봉사를 지원할 것, 도서기증 등을 요청하며 주일대출 500권에 따르는 200권 정도의 도서정리를 위해 자료정리요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서점사역팀|

서점사역팀에서는 여러 기독교 관련 교양서적과 교우들로 부터 필요한 책을 신청받아 정가에서 10%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판매수입금은 전액 교회 운용수익으로 입금하고 있다. 도서선정은 성도가 필요로 한 책, 교역자 추천도서를 선정하며, 팀자체에서 선정하기도 한다. 장득순 팀장은 “책을 본 후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꽂아 놓고, 전시된 책은 판매용이므로 커피를 흘린다거나 손자국을 묻히는 일이없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팀 장 장득순 피택안수집사

|결혼예식팀|

결혼예식팀은 두팀으로 나누어 8명이 격주 2교대로 토요일만 봉사한다. 이팀은 혼인예식때, 혼주와 객객들에게 예식과 식사를 안내하거나 신부신랑 안내 지도및 자리 정리정돈을 시킨다.

결혼예식팀에서는 음식과는 관련이 없으며 꽃꽂이는 강정녀, 최진옥 권사가 담당한다. 은영희 권사는 “개구쟁이 철부지가 한쌍의 원앙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은 감동적이다”고 말했으며, 저소득층, 불우가정은 교회 지원팀에 상담할 것을 권했다. 또, 백설희 권사는 예배가 시작되기전에 자리에 착석하여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로비 꽃길을 피해 좌우로 이동해줄 것“을 당부했다.



팀 장 은영희 권사, 김설희 권사

|홍보출판부|

홍보출판부는 교회 신문인 “함글함글”을 제작하여 성도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각부서의 동정 및 교회내 소식, 광고를 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금년부터는 편집 방향을 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보출판부 담당 김기용집사는 “2007년도에는 팀원 간의 친교와 주님의교회 비전에 입각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온 성도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신문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신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다.



부 장 김기용 안수 집사



|방송사역팀|

방송사역팀은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를 위한 방송, 영상 음향을 조정 관리한다. 영상은 5명의 팀원이 프로젝트 화면을 구성및 조정한다. 또, 본교회 카메라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봉사자들을 이를 보조하고 있다. 어려운 점은 인원이 한정되어 한사람이 빠지게 되면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는 점이다.



팀 장 남성엽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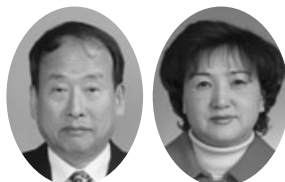
|경조부|

성도의 가정에 애경사가 발생하면 성도님은 먼저 교회사무실이나 구역장 혹은 팀장님께 이사실을 알려주면 된다. 그러면 경조부에서는 경조위원들이 교회로 모

이는 동안 팀장 등이 먼저 상가를 방문한다. 담당 구역장은 나머지 구역식구들에게 알리고 구역식구와 함께 상가를 방문해 위로예배에 참석한다.

상주가 입관예배와 발인예배를 원하면 경조위원과 구역식구들이 참여하여 예배를 드린다. 팀장은 교회의 “기”와 “부의금”을 지참하며, 예배는 담당 구역목사님이 집전한다.

상을 당한 성도는 “꼭 당황하지 말고 교회에 상을 당했음을 알리고 교회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최종명 팀장은 말했다. 또한 시간으로 함께 봉사하실분의 지원을 기대라고 있다.



1팀 박홍용 안수집사, 김금숙 권사



2팀 최종명 안수집사, 배홍자 권사



3팀 정양재 안수집사 전혜영 권사

목양사역본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나님과 성도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길



본부장 김경신 장로



위원 권오승 장로



위원 김용일 피택장로

목양사역본부는 김경신 장로를 본부장으로 하고 있으며 권오승 장로, 김용일 피택장로가 봉사하고 이창현, 정영환 목사가 돕고 있다. 목양이란 문자 그대로 양을 치는 일, 성도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부서이다. 김경신 장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성도간에 교제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예배부|

큰 키의 예배부 조영률집사는 예배부 취재를 요청하자 손사래를 치면서 몇 번을 거절했다. 그러면서도 예배부는 예배의 매뉴얼을 다 준비해놓아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든지 매뉴얼만 보면 예배준비를 잘 할 수 있다며 예배부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 예배부는 예배의 자리를 정돈하거나 기도자 성경봉독자, 헌금위원을 점검하는 예배팀과 꽃꽂이를 담당하는 꽃꽂이팀과 성찬을 준비하는 성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 장 조영률 안수집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토요일 교회에와서 예배 준비를 마치는 일이다. 토요일에 교회에와서 찬, 성경책, 장애우 자리배치, 의자 등을 배치하고 정신학교에서 사 용한 후 흐트러진 비품을 말끔히 정돈하면 예배준비가 끝난다.

|안내부|

안내팀은 예배가 시작하기 직전에 성도들이 편안하고 기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는 간판들이다. 본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예배위원들의 모습을 보면 절로 기쁨이 넘쳐나오고 평강이 넘쳐 나오게 하는 이들의 역할은 대단하다 안내부는 56명의



팀 장 강진식 안수집사

인원으로 1부에는 7-8명이 안내하고 2부에는 15-20명이 3부에는 15-20명이 안내한다. 이들의 가장 큰 소망은 성도들이 예배시간을 준수해서 지각하지 않아 더욱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이다.



|통역사역팀|

통역사역팀에는 4명의 통역자(팀장-한진희, 통역봉사자-강현아, 최수진, 황선경)와 2명의 데스크 봉사자(태재승,나혜원) 수고하고 있다. 이들은 과학 저널지, 국제 아리랑방송 아나운서, 삼성SDI, 외교통상부 통역관으로 근무하는 일꾼들이다.



팀 장 한진희 집사



이들은 주일 설교자로부터 원고를 미리 받아 번역 작업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2-3부 동시통역 서비스를 실행으로 제공한다.

|새벽기도사역팀|

새벽기도회는 매일 오전 5:30에 소예배실에서 열리며 본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다른 성도들도 참여하고 있다. 매주 목사님들이 교대로 메시지를 전해주어 더욱 풍성한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다. 기도회 참석인원은 현재 70명-100명 정도이다. 가장 노고가 많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몇 년동안을 빠짐없이 새벽 피아노 봉사로 수고하고 있는 조정숙 집사와 작년부터 함께 돕기 시작한 박경숙집사이다.



팀 장 한영석 안수집사

|호산나찬양대|

이른 새벽, 내 몸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유혹하지만 벌떡 일어나 찬양대 연습실을 향할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즐겁고 상쾌한지 모릅니다. 새벽 6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연습실에 가까이 가면 반갑게 인사하는 소리와 웃음소리에 벌써부터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찬양대원 허영자집사의 고백이다.



대 장 설영운 집사, 지휘자 박영주 피택안수집사

호산나 성가대는 모두 71명으로 구성된 정예대로 구성되어 있다. 주일 06:00~07:10, 08:50~10:20 연습을 통해 소리를 만들고 우의를 다지고 있다. 금년 가장 중요한 활동계획으로 6월 20일(수) 창립기념음악회를 준비하는 것이다.

지휘자 박영주안수집사 피택자는 “열심히 찬양한 후 회중들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여 주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설영운 집사는 “호산나 찬양대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노래로 찬양을 드릴때 같이 노래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부르기를 좋아하는 분들과 이른 아침에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어서 오세요”라는 부탁의 메세지를 전해주었다.

|시온찬양대|

시온찬양대는 총 110명으로 구성된 메메트 찬양대이다.

아침 8시부터 1시간 30분 연습을 하고 예배후 1시간 연습을 한다.

시온의 지휘자 김인수 집사는 카리스마가 넘친다. 우리교회에서 청년들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20여명의 청년 성가대를 데리고 합창연습을 시키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다. 세상적인 언어가 아닌 천상의 언어로 세상적인 눈이 아닌 성령의 눈으로 성심의 귀로 진정한 찬미를 들으신다. 본교회 성가대는 찬양할 때나 연습할때나 뽐뽐한 긴장감과 충만함을 동시에 느낀다. 연습실을 찾았을 때 대원들과지휘자간의 음성언어는 부드러웠으나 소리와 표정의 민감함을 느낄 수있었다. 하나님의 사업은 이렇게 긴장되며 진실되게 시작하는 것 같다.

최성준 성가대장은 “단원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성탄절 칸타타이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한다.”고 말했다.



샬롬찬양대

샬롬성가대는 총 121명으로 구성된 3부 예배를 담당하는 본교회가 자랑하는 찬양대다. 지난 성금요일 “장엄한 예배”를 성황리에 마쳤다. 장엄한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듯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기 위해 부활절 전날 본당에 올린 미사곡였다. 그날, 운유한 카리스마 지휘자 이동훈 집사의 손끝에서 창조된 미사곡에 가시관을 머리에 두르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자비의 주님은 손을 내밀어 합창단의 목소리를 타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감동을 선물했다. 전능하시 주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소프라노와 알토의 화음은 더 이상 사람의 소리는 아니었다. 테네의 서정적인 목소리는 금관악기를 능가하고 베이스의 구성짐은 목관악기를 부끄럽게 했다. 모두 숨을 죽였다. 그리고 할렐루야를 마음과 마음으로 연호했다.

권순영 팀장은 “올해는 군부대를 위문하고 병원을 선교할 것이며, 대원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무엇보다도 젊은대원들의 참여가 급선무”라고 의미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임마누엘찬양대

작년 10월에 시작된 임마누엘 찬양대는 모든 것이 따끈따끈하다. 작년 9월 처음 연습 때부터 11월말까지 지휘자로 수고해 주신 고은에 집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찬양에 대한 열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따끈따끈했다. 현재 지휘자 권덕원 집사는 신앙적 성숙함과 정열



대 장: 최성준 안수집사 지휘자: 김인수 집사



대장: 김익환 지휘자: 권덕원 집사

에 더하여 풍부한 유머를 구사해 찬양대원들로 하여금 연습시간을 사모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또한 찬양대원 모두가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고 있다.

찬양대는 매주일 12시에 연습을 시작하고 4부 예배 찬양 후에 4시 반까지 연습한다. 함께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언제든지 열려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 할렐루야!(시150:6)”



할렐루아찬양팀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 (하박국3:17~18)

할렐루아 찬양팀은 수요일예배에 회중 찬양을 인도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6시에 모여 기도로서 시작한다. 그날의 찬양으로 경배하며 곡조있는 기도로 예배 드릴 때에 여러성도들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함을 간구한다. 할렐루아 찬양팀은 언제나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위로하심과 영광 받으심에 새함을 얻는다.



새가족사역팀

새가족사역팀은 새가족의 교회 등록으로부터 구역정착까지를 돕는 사역이다.

사역의 주된 내용은 ①새가족등록안내, ②주일날 새가족과 교역자, 구역대표와의 첫만남을 돕는 일, ③새가족모임을 통하여 신앙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나누며 교회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 ④새가족의 구역 정착 상황을 파악하는 일 등이다.

박준규 팀장은 “담임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도 새가족이 꾸준히 등록하여 (50-70명/월, 500-700명/년) 등록비율이 줄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이는 본 교회가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특기할 사실은 젊은 새가족이 꾸준히 등록하고 있어 이들을 잘 양육하면 주님의교회는 젊고 약동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가족사역을 통한 바램과 기도는, “등록한 새가족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 구역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것, 기왕이면 우리 교우들의 손길을 통해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중보기도사역팀

중보기도 사역팀은 주일 10시 30분-12:00, 1:00-2:30분 첫째 목요일 10:30에 유치부실에서 70여명이 모여 기도한다. 기도제목은 주로 성도들이 부탁한 기도카드내용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올린다. 이 모임은 4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교회를 위한 기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팀장:최재경 권사



팀 장: 박준규 안수집사



팀 장: 김형기 권사



김형기팀장은 “예수님도 중보사역자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모습을 닮는 것이며,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결국은 자신도 축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중보기도는 가장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의 가장 권세있는 방편이라며, 욕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세 친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기나긴 고난이 끝났듯이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을 것”이라며 본당 6층 기도실에서 기도소리가 하늘나라까지 닿기를 소망했다.

영어사역팀

현재 50~60명이 참석하는 영어예배부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임과 동시에, 우리말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도 진정으로 환영하며,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많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혜경팀장은 “4월의 2주년 기념예배를 비롯하여 금요일 성경공부/ 토요일 찬양사역팀 연습/ 주일영어성경공부와 소그룹모임/ 친구초청/ 국내외 영어예배사역과의 네트워크 조성/ 주님의교회 기존 사역팀과의 협동봉사/ 남성사역모임/ 여성사역모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행사/등을 통해 2007년 한 해 영어예배부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팀 장: 이혜경 집사

세례사역팀

세례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첫걸음이다. 세례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확인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평생 한 번뿐인 귀한 예식이다. 주님의교회는 올해 등록교인을 대상으로 4월 8일과 10월 7일 주일에 장년 세례예식을, 6월 3일과 12월 2일 주일에 유아 세례예식을 계획하고 있다.

올 첫 장년 세례식이 있었던 지난 4월 8일, 49명이 5주간의 쉽지 않은 과정을 마치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예식팀에 관심 있거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팀장에게 연락하면 된다.

인터넷부

인터넷부는 교회 홈페이지 www.pctv.org를 운영하여 예배및 교회안내, 설교동영상, 교회활동사진, 합중함을 PDF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교회의 각종 부서의 개별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어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팀 장: 노수연 집사



예배의 현장 (부활절 신앙 사경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지난 9일부터 11일 주님의교회 대예배실에서는 부활절 신앙사경회가 열렸다. 강의를 장신대에서 조직신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명용 목사가 이끌었다.

김목사는 먼저 다양한 영성신학의 흐름을 소개했다. 그는 편협함을 극복하고, 중요한 정신과 관점을 소홀히 하거나 간과하지 아니하고 가능한 한 모든 진리를 통합하는 통전적(hoistic) 영성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전적 영성신학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지 않는 신학이다. 또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과 이성이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땅을 사랑하지 않는 영성은 참된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라고 본다. 즉 땅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고 모든 창조세계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통전적 영성신학이다.

이에 따르면 그리스도교 영성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

고 세상을 사랑하는 영성이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고자 하시는 성령의 일에 동참하는 신학이 바로 통전적 영성신학이다.

김명용 목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믿음과 희망, 사랑과 정의가 그리스도교 영성의 특징이며 이에 따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고 전했다. 영성운동의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할때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부활절사경회를 위해 굵직한 자료집이 미리 배포되었다. 비교적 전문적인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화기에애한 분위기 가운데 성도들은 신앙사경회를 마칠 수 있었다.

최사라 기자



<진중세례식>

주님 손 놓지 말고



군부대교회사역팀(팀장:윤의탁안수집사)은 4월 14일(토) 열쇠부대 신병교육대 상송교회에서 주관하는 진중 세례식에 참여했다. 성백술 장로는 "군대생활 동안 각자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일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기도했다. 이어 정영환 목사는 세례예식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젊음으로 풍요롭고 기쁨과 평화로 긍정적 삶을 살아가라 권면한 후 날마다 보호해주시고 은혜롭게 하나님 손을 잡고 놓지 말고 하나님 아들임을 잊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번 세례식에서는 150여명의 신병들이 하나님에 자녀가 되어 새 생명을 얻는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신형섭 기자

오늘 기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시126:5)

<청각재소자 면회>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장애인부 사역팀에서는 지난 4월 18일(수) 안양교도소를 찾아 청각장애재소자를 면회했다. 그곳에는 청각재소자 20여명여명이 수감되어 있다.

신화식 목사는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나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살아가며 어려운 일 생길 때, 여호와는 우리를 보살펴주고 모든 것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에 힘들 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12년 중형을 받고 있는 재소자와 얘기를 나눌 때 그의 눈이 빨개지고 눈물이 고이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회로 발길을 돌렸다. 신형섭 기자

나의신/앙/이/야기

중고등부 세례·입교식을 마치고..

부활주일 중고등부에서 입교 및 세례식이 있었다. 이날 중고등부에서 입교자 13명, 세례7명이 교육부 정요섭 목사의 집례로 입교 및 세례를 받았다. 중예배실을 가득 채운 중고등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입교와 세례자를 축하하고 격려했고,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여성 4인조 CCM 그룹인 소울 싱어즈가 예배 후 축하 공연을 갖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친구가 외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성적도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 될까라는 인정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하고 장래희망도 불확실한 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이 정말로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걸까? 하는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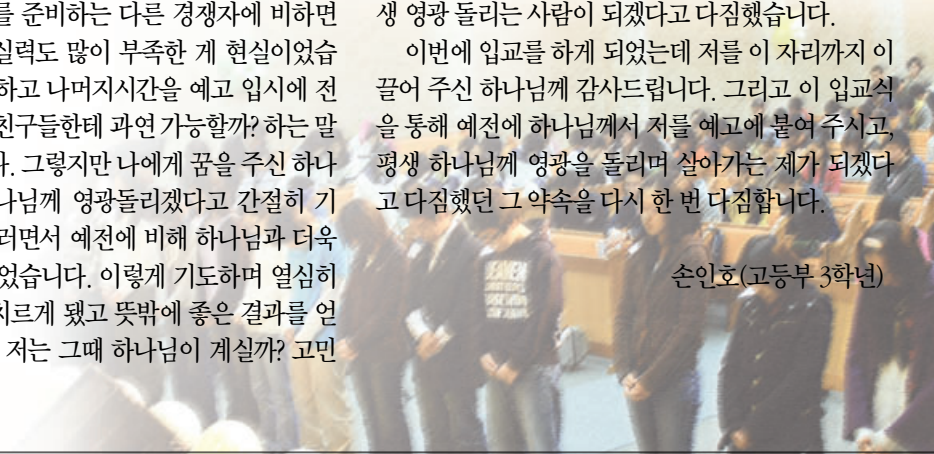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교회 가는 길에 우연히 음악 하는 선배를 만나 그 선배의 소개로 음악을 하게

되면서 예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중3 때쯤이라 이미 예고를 준비하는 다른 경쟁자에 비하면 준비기간도 짧고 실력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오전수업만 하고 나머지시간을 예고 입시에 전념하며 지냈지만, 친구들한테 과연 가능할까? 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겠다고 간절히 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비해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해서 입시를 치르게 됐고 뜻밖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계실까? 고민

했던 과거시절이 너무 죄송했고 앞으로 하나님께 평생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입교를 하게 되었는데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입교식을 통해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예고에 붙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제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손인호(고등부 3학년)



무지개축제 준비위원회 조직표

부/분과	세부팀	위원	팀장	팀원
총괄	기획팀	김경신	동현수	최재경 장일형
	사무실		김동근	사무국
1부	무지개운동회	김현덕	최상인	조영률 박대길 하승락
2부	보드게임	이병식	조원호	박인호
	먹거리마당	김양자	김한중 김지자	박경옥 조성득
	놀이마당 축재마당	한윤경	김창안 최종만	최성준
3부	무지개콘서트	김원중	신정웅	강석인 고석창 문원홍 임경수 최종영
홍보/주 차/정리	홍보/기록 주차안내	이지화	김홍용 배익환	주차안내부
	정리		윤의탁	서지영 김기용
의무/안 전	의무	박호길	김학원	박동수
	안전		김성구	이용수
교회학교	교회학교	이영자	박종규	강웅순 송국환
봉사 시설	봉사팀 시설팀	엄주형 김성배	한형석 강진식	이원철 김구중
청년스텝	청년부		임창남	정우석 서나리
사진촬영	사진부		정원영	

준비위원장: 김경신
자문위원장: 문창복
자문위원: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양동훈,
성백술, 계학용,
황기언, 권오승,
김재현
기획 및 총괄: 김응일
전체 회계: 노봉옥
총괄교역자: 이창현

〈하프타임강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하나하나



4월 17(화) '창세기, 생명 과학, 인체의 신비' 라는 제목으로 김익환 집사(고려대학교 생명 과학대 교수)가 하프타임강좌를 강의했다. 이날은 두 번의 강의 중 첫 번째로 창세기를 통해본 생명 과학에 관한 것이었다.

비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성경의 비과학적인 서술은 무엇이며 성경은 과학적인 책인가? 라는 가정아래 과학과 성경의 만남에 대한 강의를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하며 차분한 강의를 했다.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순서는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질서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좋아하셨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작품 하나하나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새로운 주제로 열리는 하프타임 강의는 50세 이상 성도들만 대상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다. 4월 24일(화)에는 하나님이 만든 인체의 신비에 대해 강의하게 된다. 신형섭 기자

〈미술인 선교모임〉 작은 수고를 통한 의미있는 봉사 실천



미술인 선교모임은 지난 4월 15일 오후 1시 30분에 모여 지난 3-4월 보고와 무지개 축제에 진행될 행사에 대해 토의했다.

4월 11일(수)에는 청각 장애인 재소자들이 수감 되어 있는 안양교도소를 방문하여 부활절을 기념하는 의미로 계관 공예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부활의 참뜻을 함께 담

아 전했다. 참여한 사람들은 매우 즐거운 듯 모두 공예활동에 열심히 참여를 하였다. 또한 친구약 7원으로 만든 만화 성경을 3절을 증명하였고 20명분의 선물도 준비했다. 그 선물 안에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를 적은 카드도 동봉했다.

비록 작은 수고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선교모임 회원들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기사제공: 동경숙 집사(미술인선교팀, 5-12)

〈제5여선교회〉 “살롬의 집을 방문 했습니다.”



5여선교회 회원들은 4월 9일 담당 교역자인 나현수 전도사와 함께 살롬의 집을 방문

했다. 살롬의 집은 가족들로 부터 버림 받고, 이웃으로 부터 외면 당한 중증장애인(뇌성마비, 정신지체, 하반신 마비, 간질, 자폐아등, 1급, 2급 장애인장을 받은 사람들) 27명이 모여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살롬의 집 가족들은 모두 힘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도우며, 아껴주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부족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밝게 웃으며 5여선교회 회원들을 따뜻하게 맞는다.

예배를 드릴때는 발음이 부정확하지만 힘을 다해 찬양하는 열성에 회원들 마음까지 뜨거워진다. 5여선교회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살롬의 집을 위해 함께 봉사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기사제공: 천정희 집사(2-7)

중보기도사역팀 4월 전체모임

지난 4월 12일(목) 오전10시30분에 중보기도 사역팀 전체모임이 있었다.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후 정영환 목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다. 정목사는 주기도문은 습관적으로,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니며 각자가 자기 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임을 강조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가르

쳐 주시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함을 중보기도사역 팀원들에게 전했다.

중보기도사역팀 전체모임은 평소에는 릴레이기도로 만나지 못했던 사역자들이 모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이다.

기사제공: 송용미 집사 (중보기도사역팀, 4-9)

방과후학교

부활절 계란 전시회

매 주 토요일2시부터6시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에서는 지난 7일(토), 부활절을 맞아 '계란꾸미기' 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부활절인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1시반까지 교회 앞마당에서 간단한 전시회를 열었다. 요즘 보기 드문 하얀 계란에 색색 칼라

로 그림을 그렸는가 하면 예쁜 포장지와 도화지로 동물모양을 만들기도 했다. 가장 돋보였던 것은 전단지로 접어 만든 일명 '학모양 계란' 인데 방과후학교 한 권사의 부친이신 87세의 할아버지께서 치매방지로 틈틈이 만들어오시던 것을 이번 부활절 계란 바구니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의 밑면에는 만든 이의 구원을 위한 기도부탁의 글귀가 적혀있다. 부활절날 전시회가 열린 앞마

당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달걀을 보며 즐거워했고, 아이들도 자리를 떠날 줄 모르며 구경했다. 허진 기자

